제1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1957년9월24일(단기4290년) 상오10시20분

의사일정

1. 제1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월남오대통령시장초청회개최에관한질의의건
4. 교육세징수사무이관에관한건의
5. 서울특별시도살장설치조례제정에건

부의된안건

1. 제1차회의록통과 ····· 1면
2. 보고사항 ····· 2면
3. 월남오대통령시장초청회개최에관한질의의건 ····· 26면

(10시 20분 개의)

○의장 박명준; 착석해 주시기 바람니다. 지금으로부터 성원이 되였음으로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신용석;

(제15회임시회제1차회의록)

○의장 박명준; 회의록낭독에 이의없읍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없읍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 전차회의록은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으로 드러가겠읍니다.

먼저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한상기의원 홍성유의원으로 지명합니다.

---

2. 보고사항

○간사장 신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請暇願 제출에 관한건입니다.

방동석의원으로부터 일신상 형편으로다가 34일 25일 양간 청가원이 제출되였읍니다. 보고해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잠깐 보고를 받기전에 우리집행부에 신임 토목과장으로 오셨는데 잠깐 우리의원앞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토목과장 박중욱; 인사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새로 서울시에와서 수도건설사업에 중요한 부문에 토목부분을 책임맡게 된 박중욱입니다. 실은 6월말에 왔으나 미국 시찰여행도중이기 때문에 두달 남시지나는 동안 인사말씀못드리게 된것을 유감의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은 드릴것없이 수도건설에대한 중요성…… 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것을 저나 여러분은 아는바입니다.

이중책을 감히 이행해나갈까? 저의있는 성의를 다하겠읍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이자리에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명준; 지금으로부터 지난번의 각도시찰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경북지방시찰보고가 있겠읍니다. 문학우

의원.

○문학우 의원; 간단한 말씀드리겠읍니다. 8월12일 경상북도도의원 의사계장의 안내로 도의회를 예방했읍니다. 마침 휴회중이기때문에 도의원여러분들을보지못하고 의사당을 시찰했는데 역시 40년된 건물 도청회의당을 빌려가지고 쓰고있는 관계로해서 동행했든 이익렬의원께서 여러가지로 우리 좋은 자료를 만들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은 생략합니다. 의석이 61석이고 자유당에 49석 민주당이 8석 무소속이 4석 의회운영사항은 별도로 되여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요걸 생략하겠읍니다. 저의 들이 내려갔을 당시가 마침 경남지구수해가 그친뒤가되어서 도민일동이 이수해에대한 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시찰내려간 저의 일행 역시 경북도내에대한 수해에 관심을 가지지않을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산업위원장 달성군산업과장의 안내로 달성군일대 수해지구를 시찰했읍니다.

수해상황은 침수상황은 89년래 처음 경작물에 대한 피해는 유사이래 처음이라는 이러한 놀랄만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낙동강연안 10리가 전부 저수지가되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작물 피해가 넘었읍니다. 이수해로인해서 인명의 피해가 190명 주택의 피해액이 3억2천2백만환 今般 경북전체의 피해액이 44억1천8백14만천환이라는 막대한 수자에 이르고있고 구호대상인원수가 340명이라는 굉장한 수자에 이르고 있읍니다. 경북도민들이 말을들어보면 경북도내의 구호방법만가지고는 도저히 수해민에대한 구호를할수 없으니 서울시의원들이 내려온김에 본바 느낀바를 중앙에 반영시켜서 수해구제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들었읍니다.

그이튿날 대구시의회를 시찰했는데 역시 휴회중이기때문에 의원여러분을 만나보지 못했읍니다. 대구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능금의 명산지로서 87개동국민반수 3천4백73반 동장 102명 으로서 대구시 행정을 운영하고있읍니다.

인구48만8천9백60명에 시의원 23인에 자유당이 15석 민주당이4석 무소속이 4석 예산에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1년 30억5천4백4십8만9천4백환 또의회비 천2백4십7만7천3백환으로 되여있읍니다. 의회의 집행부사이에 공기는 대단히 원만하다고 보고있읍니다만은 역시거기에도 야당의 서름 이라고하는것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에도 있다는것을 저희둘이가서 느꼈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하셨기때문에 간단히 이로서 여기에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김주흥의원의 경남시찰보고가 있겠읍니다.

○김주흥 의원; 경상남도반 시찰보고를 하겠읍니다. 우리시간도 절약할겸 다른보고는 안하고 우리의회의 관계되는 얘기만하겠읍니다. 시찰반편성은 저의 경남도는 이갑수의원 장의순의원 강을순의원 방동석의원 그리고 저올시다. 편의상 이갑수의원을 반장으로 추대했읍니다. 시찰기간은 8월7일부터 약3일간했읍니다. 범위는 경상남도의회 부산시의회 기타 경상남도 부산시 산업시설을 보았읍니다. 당시 경상남도일대에 혹심한 수해가 있어서 다른지방의회를 시찰할것을 보류하고 기간을 단축했읍니다.

따라서 보고할 말씀은 경상남도 부산시 이두군데 기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의 67의석으로서 구성되여있읍니다.

분과로서 내무 산업 문교 사회 예산 징계자격운영 이렇게

여섯가지 상임위원회를 갖고있는 저의 의회와 같이 역시 내무와 산업과 문교 사회는 기본 기간분과이고 예산은 겸임이요 또한 혼성위원으로서 구성하고있읍니다. 징계자격운영 역시 겸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읍니다. 또 부산시의회는 의석이 27석 이올시다.

내무 산업 건설 문교 사회 이 4분과가 기간분과가 되고 운영 징계자격 두분과가 겸임위원회를 구성하고있읍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치가 있읍니다. 다음으로 의회가 개회한 회수하고 그날자 소위 제2대회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가 6회 6월달 현재까지 6회 90일 이상 소모했읍니다. 또 5년을 통산할것 같으면 34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부산시의회가 일곱번 열었는데 역시 90일이상 개회했읍니다. 따라서 회기총일수가 90일이 부족하다는것은 5년의 경력을가진 경상남도의회나 부산시의회가 다 당하고있는 하나의 현상이 올시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道路會보다도 더날자가 적은것을 느끼고있는것을 보았읍니다. 다음으로 의안처리상황 경상남도의회는 건설안 21건 예산안 2건 조례안 2건 청원을 249건 이렇게 일년에 처리하고 있읍니다.

부산시의회는 조례의 예산안을 304건 건설안 13건 청원93건을 처리하고 있읍니다.

특히 청원처리상황은 그양도 많고 또각처에도 나오기때문에 이것을 대개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것같이 되여있고 회기별로 종합해서 본회의에 일괄해가지고 유인보고하는것을 보았읍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도 가지고 왔읍니다. 그다음에 예산감사의 출납검사에대한 보고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대개 사무감사하고 출납검사를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시행

하고있읍니다. 예를들면 요전번에 그사무감사하고 출납검사는 합처서 회계출납 감사위원회 또 각 시정사무감사위원 부산시 사무감사위원 각중고등학교 사무감사위원 또군청사무감사위원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리해서 구성했읍니다.

부산시의회에서의 사무감사의 출납검사는 서울시의회의 같이 분리해서 편성하고있고 또한 실시하고있읍니다.

회계검사위원회를 대개 10명이내로 편성하고 시 사무감사위원은 전원으로서 구성한것을 보았읍니다. 또한 이 사무감사의 회계검사는 이의회의 최초에 있어서는 대개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무감사의 회계검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해온것을 볼수있고 그후 점차 개성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회계검사 같은것은 그야말로 심계원의 회계검사를 방불케하는 정도에 사항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두가지 사무감사의 회계검사가 두가지 기능을 정확하게 발휘하고 있다고 보여짐니다.

그리고 이두가지 경상남도의 부산시의 자치단체 여기에대한 재정상태를 보았읍니다. 이것은 주로 예산과 결산에 의해서 통찰해보았고 또그렇게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경상남도 지난해 88년도 회계로서 본다면 총예산이 98억2백만환 여기에는 특별회계로서는 중고등학교비 밖에 없읍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서 89억1천1백만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집행을 얼마했느냐 하면 결산서에 나타난것을 보면 78억7천6백만환을 집행을 했읍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할것같으면 집행한것이 89 퍼센트 집행 했읍니다.

그래서 末 집행한 액수를 검토해볼것 같으면 보조금 12억2천백만환이 수입이 없어요. 세입 세출에서 또 재산매각대 4천만환을 집행보류했읍니다.

이두가지 경우로 보아서 미집행액 10억3천5백만환보다는 후신 이두항목으로서 즉 보조금이라든지 재산매각대보류한 집행보류한것을 이것을 합하면 오히려 미집행액보다 많어집니다.

그래서 純金한 예산면으로 볼것같으면 사실상 105푸로 정도 집행했다고 볼수있을줄 암니다. 특히 동세에 있어서 약1억1천백만환 세입이 많어졌어요. 퍼센트로 보면 120퍼센트 집행한것으로 봅니다.

또 환부금 이것은 역시 지방의회는 환부금 임시토지수득세에대한 그것이 약1억환 징수 세입이 많었는데 이것은 집행율로 볼것같으면 127퍼센트 된 것이 올시다.

그리고 재산수입에 있어서도 역시 증가를 보고있읍니다.

그리고 역시 거기에서도 느끼는것은 사용료 수수료 이것이 수입이 적어서 한60푸로 밖에 수입이 안되고 있읍니다.

또과년도 수입의 한85푸로밖에 수입이 안되고있읍니다. 그정도로 하고 실지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예산에 넣었대는데 집행이 안되엇어요. 이것이 내려오지않었기 때문에 이 12억2천백만환을 볼것같으면 사실상에 있어서 경상남도는 예산을 105푸로 정도 집행했다고 볼수있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천5백만환정도는 신년도로서 초월했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은 70억9천만환으로 책정해서 즉 말하자면 작년 결산에 나타난 액수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로서 건전한 책정을 했다고 보여짐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비 그것이 팔억구천백만환이 책정되였는

데 이것도 역시 집행이 7억9천백만환 즉 90푸로 집행했읍니다.

그러나 이 미집행한 1억에대한 내용을 볼것같으면 전입금 즉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 이것이 중앙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오는 보조금이 올시다.

중앙에서 오는 보조금 3천만환 이것을 합할것같으면 거이 미집행액과 같어짐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교육비도 100퍼센트 집행된것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줄암니다.

다음에 부산시의 재정상태는 어떠냐 총예산액이 88년도 회계에있어서 약40억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회계가 20억7천만환인데 여기서 결산한것을 볼것같으면 19억7천3백만환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볼것같으면 94퍼센트 집행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미집행액을 1억3천2백만환이나 되는데 여기에대한 내용을 검토해볼것같으면 당연히 들어와야할 보조금이 미처 들어오지않어서 그것이 4천만환 또 재산매각대에 팔다가 팔 필요가 없다고해서 안판것이 4천5백만환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들어오는것이고 안들어온다면 예산에도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해서 결국 1억3천만환의 미집행액보다는 이것이 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부산시도 102푸로 정도 예산에 나타났읍니다. 특히 시세가 징수잘되였고 減收된것은 별반없는데 다만 사용료 수수료 이것이 67푸로 정도 집행이 안되었읍니다.

이사용료 수수료 가운데에는 경상남도와 또는 부산시나 역시 도립병원 시립병원 이것이 중대한 영향을 주고있는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산시는 일반회계에서 1억환을신년도로 이월조치했읍니다. 그것은 수자만이 아니라 환

부금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도비가 약9억1백만환 주택비가 1억2천3백만환 토지구획정비비가 5백만환 자동차수리비가 1억9천만환 교육위원회비가 10억9천백만환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일반회계의 대동소이하게 집행이되었어요.

이중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92푸로 집행이 되었읍니다. 10억9천백만환중에서…….

따라서 이것이 8푸로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교육세가 약1억2천1백만환 예산과 틀렸읍니다. 이것은 역시 위임교육 즉시가 교육세를 받어서 교육위원회에 넘겨주는 이과정이 있어서 시세는 110푸로 넘었는데 이것만 85푸로 밖에 안들어오고 해서 문제가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틀러어서보면 이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대단히 건전하게 되어있다는것을 볼수있읍니다.

특히 지방세에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크게 모범받어야 되겠다 또한 타지방의회에서도 이것은크게 참고로 해야될줄암니다.

세금에 있어서 조정액과 부과액과 같다. 즉 이콜이되고 따라서 조정액 부과액이 이콜 되었읍니다.

우리는 부과액이 90푸로 85푸로 심지어는 75푸로로서 예산액에 삭감하고 있읍니다.

부산이나 경상도는 조종액을 그대로 예산에 올려있읍니다. 1「퍼센트」도 감하지않고 올려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징수한 결과 어제낸 예산액보다 많어졌에요.

왜 그러냐하면 경남도나 부산시는 발전도중에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때문에 그자연증가라는것이있다 그말이에요. 그래

서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많슴니다. 따라서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많어진것을 이것은 건전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방비 또는 일시차금이라는것이 전연없에요. 이자로서 일시차입금이자로서 혹 있을것이라고해서 약5백만환 책정을했는데 한푼도 쓰지않고 넘어갔읍니다. 돈을빌려쓰겠다는것을 좋아하지않는지 여하간 재정상태가 풍부해서 그렇다고밖에 볼수없는데 거기에대한 항목조차 지금 없읍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을 예산편성상 의회에서 예산을 더세워달라 증액해달라 사업이 많으니까 의회에서 요구해서 넣은 관계로 해서 대개 재산매각대에서 잡었는데 집행하는 도중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왔에요. 따라서 재산매각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보류했읍니다. 경남도 예산이나 또는 부산시 예산에서볼것같으면 거이 한 30「퍼센트」정도 집행하다가는 말고했에요. 못한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거액의 그금액을 갖다가 대체로 익년도로 초월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문제되는것은 어느 단체나 이사용료 수수료 특히 병원문제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받고있는것을 볼수있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실태라고할까요?…….

이것을보면 대체로 예산과 더부러 그면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또결산과 더부러 그실적을 상세히 보고하는것을 보았읍니다. 서류도 가지고 왔읍니다. 결산서의 더부러 사업집행하는것을 백여「퍼센트」에 달하는 책자로 간단하게 설명서를 붙여서 보고한 것을 보았읍니다.

또 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분에넘치는 특기적인 사업에 착수하는것을 보았읍니다.

특히 부산시는 경주동과 동대신동간에 「돈낼」공사를 해

서 시가지를 일소화해본다는 그러한 기백을 가지고 낸다는것을 보았읍니다. 부산시에서 보는데요. 부산시에는 의회의 의회 의원들과 시장님이 누가더 이민의에 응해서 잘하겠는가 하는것을 경쟁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고 역시 민선시장의 풍모를 엿볼수 있읍니다. 그리고 좀더 상세한 말씀은 시간관계로 않들이겠읍니다만서도…… 상인들이 대체 사업기관으로서 그도매시장 이것은 대행을 시키고있는 것을 보고왔고 그외에는 시가 직영하고있는것으로 되여있고 도로 역시 그와같은 상태에 놓여있읍니다. 참고자료로서 이번 예산서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결산서라든지 또는 사무감사 회계감사 보고서를 한통식가지고 왔읍니다.

참고해보실 분들은 보십시요.

○의장 박명준; 다음은 정태희의원의 충남도 시찰보고가 있겠읍니다.

얘 정태희의원이 아니고 신종수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신종수 의원; 충청남도 시찰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일자는 8월13일 부터 15일 3일간 시찰했읍니다.

시찰의원은 김상흡 정태희 최종욱 이종원 홍성유 신종수 이렇게 여섯사람이 충남으로 다녀왔읍니다. 대략 충청남도는 1시 시가하나이고 군이 14개입니다.

그리고 읍 면이 172개 총면적이 142만9천여평방「매-트」이고 인구가 218만1천6백54명 그리고 경지면적이 238만5천8백57정보 가령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특산물로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하나의 神藥으로 믿고있는 인삼 재배를 시찰했읍니다.

더우기 인삼의 산지로서 유명한 개성이 적지로 드러가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적극적으로 이재배를 장려하지 않으면 않될

처지에 놓여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세워가지고 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 5만2천5백74평입니다. 이것은 관영과 민영과 합한것입니다. 수확예정량 최고 5년근입니다. 5만7천여근날 예정에있읍니다. 가격을볼때에 4억6천만환 정도라고 말하고있읍니다. 또면작 솜 면적 9만5천198町步로서 수확고는 약4백만 이상 나온다고합니다. 그리고 교육관계입니다.

대학이 충남 국립대학을 위시해서 3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59교 중학교 85교 국민학교 402교 기타 잡종학교가 4교 공민학교가 194교 고등공민학교가 48교 학생 총수가 약한 40만입니다.

그래서 14일날은 대전방직을 남한의 방직공장중에서도 屈指로가는 이공장을 산업과에 계신분하고 같이 갔었읍니다. 먼저 시설이 현대적으로 되여있고 생산고도 상당이 나온다고합니다. 의회사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충남의회는 의원이 45명인데 금년도 90년도 회의개최일수가 정기회의가 30일 임시회의가 17일 도합 47일간 회의를 했읍니다. 의안심의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심의가 두번 조례심의 통과된것이 9건 건의사항 11건 청원처리가 48건 결의가 7건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회비로서 총액이 6천6백환 그내용은 생략하겠읍니다. 도로감사 또는 출납검사는 이것은 역시 아까 김주흥의원이 보고한바의 마찬가지로서 지금은 종합검사를 하고있읍니다. 그사항은 별표로 제가 책을가지고 왔읍니다.

회의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규칙이나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만들었기때문에 별반 특별하게 다를것이 없었읍니다.

단 다른것은 회의시간을 여기는 오전10시부터 오후한시까

지로 했으나 거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로 되여있을 뿐 위원회조례도 내무부 준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으니 의회권한 위임조례는 없읍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거의반정도가 의원들이 시내에 살기때문에 어제든지 모일수있고한데 지방의회는 최고達거리는 4백리가량되여서 의원들이 회의가 있을때는 百事를 제처놓고 오기때문에 비교적 성원이 잘된다고 했읍니다.

여하한 안건이든지 위원회에서 간단한 안건은 처리할수있기때문에 권한 위임 조례는 안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충남의 재정면을 말하자면

88년도 총액은 약6, 7억인데 그중 정부보조액이 81% 자체수입은 19%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보조금에 의존하지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않될 처지에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세제를 개선해서 국세를 대폭 지방자치단체의 이양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외에도 있으나 이만 끝이며 참고서류는 제가 갖이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어제든지와서 봐주시기 바람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강을순 의원; 이제 보고사항이 아직도 많이남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고사항 자체는 대부분이 참고로 되여있지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유인물로 보고해주시고 보고사항은 이정도로 끝났으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재청입니다 이의없읍니다」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이의 없으십니까?

○김수길 의원; 지금 강을순의원의 말씀에대해서는 본의원도

찬성하나 금일 보고사항에 있어서 급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본의원이 나와서 말하려하는데 여기에대한 이해만해주시였으면 좋겠읍니다.

강의원이 말씀한바와 같이 시찰보고에 대한것은 생략하고…….

(「좀 종결짓고 합시다」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동의의 재청이 있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읍니다」하는이 있음)

○김규원 의원; 우리가 매양 의사진행할때 언제든지 시작과 끝이 언제든지 같어야 할것입니다.

지금 여러의원들이 더운데가서 수고를 해가면서 시찰조사한것을 지금 보고하는 도중에 있는데 나머지 보고안한 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는 대단히 문란해서 않되니까 오늘은 이정도로 하고 그나머지 도는 내일로하고 또남으면 모래로 하든지 할것이지…….

처음 시작한대로하고 오늘은 강의원말씀대로 끝치고 나머지 도를 내일로 모래 이틀동안에라도 보고사항으로서 처음에 시작한바와 같이 했으면 좋겠읍니다.

(「찬성입니다」하는이 있음)

강의원이 취소한다면 의견정도로 끝이겠읍니다.

(「강의원 의석에서 좋슴니다」하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동의는 취소되였읍니다.

이 보고사항은 내일로 하기로하고…….

(「시찰보고만 중지하는것입니다」하는이 있음)

보고는 오늘로서 끝이는것이 아님니다.

(「발언통지대로 합시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긴급한 보고사항이 있다고 들어왔음으로 먼저 긴급한 보고를 듣기로 합시다.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김수길 의원; 김수길이 올시다.

지난 9월20일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중에있는 조선흥행 등 취체규칙 동시행세칙에 위배되는 잠정적시행 其율을 통과시켰읍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왜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킨것을 말하지않으면 안되는 이유을 말하겠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세간에서 대단히 물의를 이르키고있는 실정이고 교육위원들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께서 선출했기때문에 잘되여나가기를 希求하는 노파심에서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조선흥행등 取締규칙에 내용은 무엇이냐하면 골자는 좌석문제인것입니다.

말하자면 조선흥행등 取締규칙에 내용을보면 좌석을 횡열 6석밖에는 허락않되였읍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잠정적시행규칙은 6석을 10석으로 늘이자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 왜세간에 물의를 야기케되였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명보극장과 국제극장이 설립되였읍니다.

이두가지 극장에서 좌석을 늘여달라는것을 교육위원회에 진정을 해왔읍니다. 그래서 진정을 합법적으로하…… 하기에는 잠정적시행기준을 먼저 통과되였읍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흥행을 하는 업자 둘이나 일반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모종의 내막이 있지않나 이좌석을 늘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교부에서는 지난번에 가결된것은 위법처사이다라고 신문

지상을 통해서 문교부측 담화라고해서 나왔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위원회가 잠정적시행기준을 통과시킨데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것이 옳다고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간의 물의를 이르켜 가면서 하는 교육위원회의 처사를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저의 개인의사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물의를 이르켜가면서까지도 교육위원회가 좌석을 늘여주는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 여기에 하나의 기우되는바 없지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교육위원회가 잠정적 기준을 통과시켜준것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하고 세간의 물의를 이르켜준다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로서는 긴급동의안을 해가지고 여기에대한 질의등 조사를 하는것이 타당하지않나 그러한 점에서 또한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말할용의가 있다는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선 보고사항으로 여러의원들에게 말씀해두는 것입니다.

○김상흡 의원(운영위원장); 잠깐보고말씀들이겠읍니다.

수일전에 경상남도 부의장외 일부의원이 상경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를 정식으로 방문하고 서울시민이 이번에 경남지구수해에있어 세무적으로 원조에 혜택을 많이 부여해준데 대해서 감사하다는뜻을 표하고 갔읍니다.

또한가지는 아까 간사장이 의원동지여러분에게 보고한바와같이 방동석의원 일신상이라는것은 홀로게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부득이 장사가 지날때까지는 의회에 출석을 못한다는 내용이 였읍니다.

두가지만 보고들이고 들어가겠읍니다.

○의장 박명준; 보고에 긴급동의라고 되여있는데 긴급입니까?

(「예」하는이 있음)

○김재순 의원; 건설분과위원회의 수임사항으로 되여있는 의회규칙 제48조3항에의해서 보고하겠읍니다.

이문제는 민원서류이기때문에 보고하게되였기 보고들입니다.

건명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조례중 개정의건이며 요지는 운수사업청에서 사업의 1장 버스운행을 중지하고 버스를 매각처분코저하는 조례개정의건인데 이는 매각처분의 내용이 석연치 못함에 동위원회 제3항회의에서 반려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통인동버스선 단축진정의건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인동89번지의2 대표 조진성외4명(외주민391명)으로낸 통인동뻐스 순환선로를 폐지하여 달라는 진정인데 이는 4290년1월16일자 제7회 본회의에서 채택진행하는건인데 一事不再理原則下에 기각의결되었으며 다음은

오장동 군청계획선 시정요망진정의건으로 시동중구오장동200의15 대표 강중선외2명이난것으로 요지는 대지내에 도시계획선을 시정요망하는 진정으로 그결과는 대지내에 계획선은 개지계획선이 아니고 귀속재산처리에 의하여책정한 선임에 당위원회소관이 아님에 기각의결하였으며 다음은

남대문국민학교 개수공사요망진정의건 이외 남대문초등학교 대표최윤종 명의로 제출되였는데 요지는 남대문국민학교 교사가 노후함에 위험성이 다분하기로 개축이 긴급함에 개축진정을하는 것입니다. 그결과로는 본건은 교육위원회소관이며 따라서 본건물은 개축할 정도가 아니고 신축해야만될것이며 시예산면이 허용되지못함에 기각의결하고 다음은 만리동 배수지설비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반환과 출입정지해제요청 청원의건 이는 흥일토건주식회사 대표 강온구외2명으로부터 제출한것인데 요지는 만리동 배수지 설비공사청부중 일반적

계약해제에따라 계약보증금및 기성부분공사금 청구및 출입등 고제명에 대하여 제명해달라는 청원서건인데 결과는 諸事埋에 부합되지않으며 기각함.

(4290년9월23일자 의결) 다음은

원효국민학교신설진정의건

원효국민학교사친회 대표 고한숙외14명이 낸것으로 요지는 원효국민학교 기성회로부터 하천부지를 교지로 사용한다. 대차 진정인데 본건하천부지에 학교건립과 예산관계가 불합리하다는 조건하에 기각하고 다음은 수표동21번지 지상건물철거보류 탄원의건을 중구수표동21번지 이 규으로부터 제출되였는데 그요지는 도시계획에의하여 도로시설지 철거함에있어 차를 보류하여달라는 탄원의건인데 결과가 본건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키위하여 탄원인에게는 동정할바 많으나 기각함.

다음

건명 흑석동 연지시장조합 탄원의건

원인주소 서울특별시공인 흑석동시장조합

성명 대표 방영규외 85명

요지 공인흑석동시장조합이 흑석동 연지시장대분로서 건축허가 취소등으로 의중 연지시장을 咬하로 탄원건

결과 본건 4290년 7월26일자 제13회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일건으로 일사부재리 원칙하에 본건 기각의결

다음

건명 용두동 주소 철거민 대책진정의건

원인주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용두동 681

성명 대표 방상용외 50명

요지 본건은 용두동 도로상 좌우측에 무허가주택 철거함에있어 도시계획회에 의하여 당국 지시에 순응하겠으니 청량

리부근 시유지를 알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진정건

결과 본건 거주민 실정에 비추어 답십리동 소재시유지에 이전시킴이 타당하다는 합의하에심결 의결

건명 귀속대지 공유화 진정의건 (청운국민학교)

원인주소 청운국민학교 사친회

성명 이윤영

요지 대지 공유화 쟁탈로서 청운국민학교 맹아학교 대한예수교가 분쟁함에 따라서 청운국민학교 기타로 사용하고저 하는 진정건

결과 본건은 소관 사항이 다름으로 기각의결

다음

건명 태평로1가34 지상가옥철거 보류진정의건

원인주소 태평로1가 34

성명 전재하외 40명

요지 시가 의사당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대지상에 거주하는 주거민이 철거 보류요청하는 진정건

결과 본건은 가옥주가 자진철거를 일부하였으며 또한 가로공사 시공중에있어 본건 기각키로 의결

다음

건명 임대대지에 타인이 불법 무허가 건축을반대하는 진정의건

원인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 후암동107

성명 김병태

요지 서울특별시장대 김병태가 임대계약한 대지 중구 동2가18번지 지상에 인근최모가 불법무단으로 건축시공함에 此를 반대하는 건

결과 본건 기각의결

다음

건명　남대문시장내 대지 분쟁 진정의건

원인주소　중앙물산처리대지 임차 상인 친목회

성명　대표 이준희외 10명

요지　본건은 남대문시장 상인중 중앙물산관리대지 임차상인 친목회의 중앙물산주식대대지 사용분규로서 소송까지 제기한 건임

결과　본건은 소관의 관재청이면 소송중에 있음에 당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에 기각의결했읍니다.

이상 13건을 보고드립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이갑수 의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청원서 진정에대한 처리사항 가운데에서 좀착오가 되지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남대문국민학교 개수공사에 대한 문제가 진정이 들어왔을것 같으면은 그결론을 듣자니까 교육위원회에관한 사항이니까 기각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신 모양같은데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이요 우리 시 의회는 대관 기관입니다.

그러면 교장이했던 학부형이했던 대관기관에 이것을 부탁했으면 이사항이 개수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한 결과 개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이사항은 엄밀히 조사한 결과 개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결론을 지어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이송하는것이 옳은일이지 기각한다고 하는것은 시의회로서는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보아서 이문제를 앞으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시정해주시면 하는것을 부탁합니다.

어제도 그런일이 있읍니다. 건설분과위원회의 일인데 남참동에 대지문제에 분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대해서 어느정도

제가본 견해의 좀달리하는점이 있는데 역시 그것도 기각했읍니다.

저렇게 간단하게 처리한다고 하는것은 좀곤란한 문제가 아닐까해서 추후 이것을 잘알아보아가지고 되도록 이런 각해당분과위원회에서 진정청원이 들어간다고 하는것 같으면 출신구 의원에게 한번 연락을 해주시는것은 필요성을 느낀다고 봅니다.

그실정을 잘알고 있는 출신구의원입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할것 같으면 거기에 혹 모순이 생기지 않을가해서 참고로 각해당분과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출신구 의원들과 긴밀히 연락을 해주실것을 하나 부탁합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다음보고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 긴급한 보고만 하고 내일로 미루겠읍니다. 최인호의원

○최인호 의원; 보고사항의 요지는 난민정착사업을 빙자하여서 사기범이 난다는 보고올시다.

본건에 대해서 지난 3월중순경부터 소재 동대문구답십리동 1통7반에살고있는 난민 김제 외42명은 불행히도 천막또는 토굴속에서 어려운 살림을 하고있는 여기에 설상 가상으로 지주측으로부터 철거 요청이 있었읍니다. 이사실을 알게된 이들은 분명치 않슴니다만은 서울 지방행정공무원의 한사람인 이 분들을 감언을 해서 농락해서 기만해서 금액을 사취한 사실이 있는것 입니다.

그 기만한 수단 방법을 간략해 말씀드리고저 한다면 현재 우리서울시에 영세민으로서 45만이상에 달하는 이 영세민들에대한 하나의 구호주택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이두가지 종류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구호 대책으로서 무상자금을 세대당에 7백50 파운트 못20파운트 세멘7포반 주는 이정책이 하나 있을것입니다. 이것 하나의 또하나는 적산처분 적립금으로 하여금 분별에 실시되는 우리 민국전역에 걸처 3백세대 케이스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맡은 시설중에는 이것이 세대당에 25만환시 제출한 이정착 사업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천막속에서 철거요청을 받아 이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하면 정착사업을 배로해서 자재 150 「파운트」 못20 「파운트」를 40 「파운트」「세먼」일곱 포장반을 열넷포장로 받게되어있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세대당에 난민주택건설 자금으로 융자주는 25만환 이것은 사회부의 방침은 아니올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를 통하는 근본방침이올시다.

이것은 시로부터 35만환을 지출해가지고 알선할수 있는 중앙부의 모 정치국회의원이 알선한다고까지 하면서 기만하면서 그동안 3차에 걸처서 손실한 금액이 얼마냐하면 제1차 5만3천환 제2차 3만환 제3차 1만5천환 계9만3천환을 편취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외에 대지를 대부해준다는 구실믿에서 10만환을 또 篇取했읍니다.

그러면 이런사실이 있다는것을 본의원은 작년부터현재까지도 사회보건위원회에 있는 한사람이 올시다마는 국장한테 내자신이 친히 출입 방문해서 이런일이있으니 이사실을 빨리종결짓고 이것은 앞으로 확실히 신문에 공고라든가해서 혹되지 않게 이런 사기가 충동하고있으니 경찰에 일임해서 단속해라 여러번 요청한 사실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한 사업가들이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하나의 조처도없이 비단 이것은 동대

문뿐만 아니라 전역에 걸처서 수십명 수백명이 피해를보고 이것을 기화로해서 물의가 충동했고 이런 사실이 발생되였다는것을 하나의 도의적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된다고 결론을 가져왔고 또긴급을 요하기때문에 보고사항을 올리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의 장본인이 누구냐 하는것은 여기에서 명시할수도 있읍니다마는 명시안합니다.

그배후에 어떤 정치현역 국회의원이 개재되였다는 사실을 이사람은 책임질터니까 확실히 있다는것을 여기에서 한번더 강조해두니까 이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보건위원회의 소관이나 내무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읍니다마는 내무분과위원회에 서류가 갈것이라고 전제로 보고 긴급을 요하기때문에 보고사항을 올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김재광 의원; 이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열세항 보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남대문국민학교장 윤종씨로부터 청원서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처사가 다소 불합리하다는점을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저하는 것입니다. 원래에 청원서는 제출 년월일이 단기4289년12월5일에 낸것입니다. 이조사를 우리위원회의 상의한결과 8월15일날 조사위원으로서 김석근의원 이익렬의원 방동석의원 노승환의원 이래서 조사서를 본의원이 제출했든것이 올시다.

그내용은 1 진정내용을 조사한바 학교실정은 수정 않으면 안될 처지에있읍니다. 2 교육위원회에 조사한바 該板는 철거하고 ○기로 건축해야될것으로 예산관계로 연구중이라함 결론 본건은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여 제반 사무가 진행되오니 당 위원회소관이 아님에 차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옵

기 조사위원회 ○하에 보고하나이다 또하나 여기에다시 말씀드리면은 본건물을 개수하는데도 학교자체가 노후함으로 이것을 신축해야한다는 이와같은 보고의 요지가 또한 부기되여있는 것입니다.

저의로서는 가진 각도로서 이문제를 연구했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또위원회로 하여금 의장으로부터 심의를 해왔든 것입니다. 이것을 저의 조사들이 기각하지말고 여기에대한 위원회가 다르니「푸리트」를 여기에 보냈다든가 건의한다든가 할수있읍니다마는 우리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에대한 심의를 부탁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내용을 달리 태도를취한다는것입니다. 이점 오해없으시기를 바라는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운영위원회에서 진정서 청원서 기타취급에 대해서 앞으로 장의원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장의순 의원; 어제도 잠깐 우리청원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진정서청원서 이것을 좀 일괄해서 양식을 갖추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설분과위원회 처리 보고사항문제가 나와서 다시한번 이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애당초 이 청원서는 원칙적으로 의안으로서 취급을해서 의회에다가 회의규칙 12조에의해서 인쇄「배부」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까지 못되어 왔어요. 그것은 아까나와서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것도 이런오해가 없기를 믿고 있읍니다.

이것이 어떤내용인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들은 모르고 있다고 결국 한꺼번에 이런 청원서는 이렇게 처리되있읍니다 하는 보고때에 그때 비로서 그렇게 처리되었나 하는정도로 알게되었다 이말이에요. 도저히 앞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요전에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청원서는 지

방자치법 40조 41조 42조 3개조항에 의해서 의안을 처리하게금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원이 들어올것같으면 그주문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그것을 전부 인쇄해서 각의원님앞으로 전부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리요청에 대해서는 처리도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오늘아침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처리했다는 그처리보고가 이정도로 좋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서면보고를 각분과위원회에다 서면보고를해서 각의원에게 돌려야 되겠읍니다.

아울러 두뇌가 명철하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할지라도 불과 2, 3분내에 보고를듣고 과연 옳게되였느냐 안되었으냐 우리가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거요. 이것을 각위원회에서 처리사항을 서면보고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또사전에 이처리서가 인쇄배부 됨으로서 각소속위원에게 그구출신의원에게 해당 분과의원은 자기의 해당사항을 보고하고 어떻게 처리되였다는 그점을 나와서 보고해주시고 그것은 반드시 서면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청원서자체를 말하면 우리 지방의회가 생겨서 가장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보다도 이청원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어디에가서하나 호소할수 없는 우리 지방의회가 생김으로서 시민들이 호소하는것이니 그구 출신의원은 해당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신중히 취급해서 그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적시적기에 풀어주는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해서 앞으로 청원서는 일절 사전에 「푸린트」할것과 청원 처리에대해서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할것 이상 청원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처리보고사항은 일로서 마치겠읍니다.

잠깐 우리의원앞에 교육위원회 금번 새로 부의장직에 피선된위원께서 나와서 인사하기로 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부의장; 서울 160만 시민의 복리를위하여 주야로 수고하시는 여러위원제위의 건승을 빌고 또한 여러분의 수고에대해서 첨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들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교육계 선배이신 김법식박사께서 일신상 사정으로 부의장의직을 사직하셔서 그 후임으로 말석을 차지한 제가 부의장으로 당선되였읍니다. 그후 곧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했읍니다마는 그간 의회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늦었지만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인사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1년동안 여러가지 방면으로 일을 해와서 저의들 생각으로는 어느정도의 집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여러분께서 倍前鞭撻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마치겠읍니다.

---

3. 월남오대통령시장초청회개최에관한질의의건

○의장 박명준; 의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월남 오대통령시장초청오식회 개최에 관한 질의의건」

본건은 어제 여기서 상정이되고 질의만은 오늘로 하기로 연기된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읍니다…….

(「답변먼저 들읍시다」하는이들 있음)

(「의장 의사진행이요!」하는이 있음)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조영석 의원; 어제 이안건이 채택이 되가지고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또이어서 보충설명까지 들었읍니다. 그다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될것인데 이자체가 중요한 안건이고 그래서 어제 책임자이신 시장이 사고로 인연해서 출석할수없다는 통지를 받고 부득이 오늘로 연기했다고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기 출석하고계시는 부의장이 대리해서 답변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것입니다만은 이 안건성격자체로봐서 부시장으로서는 도저히 만족한 답변을 할수없는 입장에 있는것이라고 본의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시장이 직접나와서 직접 듣고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않으면 이문제가 잘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되서 우리는 오늘 다시한번 시장의 직접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할것을 의장을 통해서 부탁들이고 시장 회하에 질문하기로 할것을 바람니다.

(「좋소」하는이들 있음)

○의장 박명준; 이제 시장나오시기로 연락이 갔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오시겠읍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시장출석으로 속개)

이제 시장이 나오셨으니까 일로부터 어제 긴급동의한거 질의하겠읍니다.

○이동률 의원; 어제 이문제대한 제안설명은 내무위원장께서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번 월남대통령을 이대통령께서 초청을 하셔서 우리나라에 오신것같은데 왜그러면 그러한 국빈을 초청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나라의 국가원수가 또한 그나라의 국가원수를 초청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완전한 계획이 있을것이고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우리도 보고 듣고한바에의하면 국가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야기된것같슴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국무위원이라하는분들은 그자리에 참석을 했읍니다. 또한 그나라의 부원수인 부대통령은 참석치 못한다고하면 그이유는 어디에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어보아야 할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국가에게 그런처사를 한다고하면 국민이있어야 나라도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원수가 국빈을 청했다고하더라도 거기에 참석할수있는 위치에 있는분은 대부분이 참석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부통령이라고하면 모르지만 야당부통령이라고 하는것을 생각할때에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일을 했다고 지적하는것입니다. 또한 외무부장관은 간소화하기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했다 말이에요. 우리는 간소화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다음에는 또 서울시장이 반도호텔에서 오찬을 베풀으셨는데 거기에 우리의회의장을 참석시키지않었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이렇게한 시장의 처사가 당연한 처사인지 또거기에대한 사무적 한계가 어떻게 되어서 중앙정부의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이런 행사를 했는가 하는것을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이요」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말씀하세요.

○김수길 의원; 제가 의사진행으로나온 이유는 이양심건을 분명히알어가지고 질의하는것이 좋지않을까해서 나왔읍니다.

부통령문제라든지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될 법질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고시장님의 지난번 반도호텔 오찬회시에 시장님이 왜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초대하지 않었느냐 여기에대한 그한계로서 질의하는것이 옳은것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노승환 의원; 어제 제안자설명을 상세히 드렸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재론하지않았읍니다.

그러나 몇가지로 지적해서 서울특별시 시장 및 보조기관 여러분에게 이론상으로만이 항상 전개할수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잘되갈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 책임자 내지 보조기관이 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저 합니다.

이 질의를 하기전에 집행부 기관장이신 서울특별시장에게 말씀을 드리고저하면 작년9월5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오늘날까지에 회의 임시회의를 한후 제15회가 지나는 오늘날까지에 서울특별시장께서는 이자리에 나와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사이에는 항상 혼연일체가 되자고하는 말을 개회때나 폐회때도 이런 말을 한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혼연일체가 되자고 말로만 이론상으로만 떠들지말고 마음에 혼연일체가 가질수있는 서울특별시장 내지 보조기관에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희구하는 한사람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요전 오찬회 당시에 드른바 36명이라고했는데 그날 참석한 사람은 26명밖에 오지않었다고하면 그 26명가운데에는 서울특별시 시장 명의로 오찬회를해서 한사람을 명의로해서 한다면 아까도 여러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서울특별시 시의회의장 내지 부의장을 오식회에 제외하였다는것을 질의합니다.

하기때문에 한가지는 서울특별시장이 항상 말하는 혼연일체라는 말은하는데 그스로강을 쓴다고하면 과연 그 「스로

강」대로 집행부와 의회사이에 항상 유기적인 연락과 마음의 무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람이 생각할적에는 마음의 武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금반 오 월남대통령 반도호텔 오찬회 당시에 초청하지않는 그점에 가서는 대단히 유감의뜻을 표하는바입니다.

단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앞으로에 여러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실것같에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초청을해서 오찬회를 개최했다고하면 이사람이 생각컨데 서울특별시장에 입장으로서 초청을 했는지 일개인에 고재봉씨 명의로하지않었으리라고 이점 명백히 잘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특별시 시장명의로 초청을해서 그날에 환영회를 했다고 하면 단한가지 그날에 소요된 경비는 서울특별시시민이 거출한 공금으로 사용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고재봉씨에 사재로서에 사용한것인지 이점을 고재봉씨 내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여러가지 많이있다만은 여러의원들이 말씀을 많이하실것같에서 이상으로 두가지에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명준; 지금 질의하시겠다고 하는 의원이 모두 열네분이나 됩니다. 이 열네분을 전부다 할라고하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것같은데 어제난분도게시고하니 순서를 보아서 어제 질의를 난분부터 먼저 발언을 드리려고할까 합니다.

○김경원 의원; 월남 오대통령 환영문제에 있어서는 기히 우리 국회에서는 떠들석 했다는것을 우리 서울특별시 고시장이 잘알고 계신데 이걸먼저 한마디물어보겠읍니다. 그러면 고시장께서 국회에서 떠들석한 여러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실책

혹은 허다한 추태를 연출했다는것을 잘아실줄 암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장은 시장에 이름으로서 오대통령을 오찬회에 모셨다면 물론 우리서울시민은 중앙에서…… 정부에서 그러한 가지각색을 추태를 연출한것을 다시연출하지않으리라고 하는것을 믿었든것입니다.

그러나 고시장은 우리 서울시민에 160만에 대표자가 분명하다 이런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호텔에다가 그 국빈을 모실적에 어째서 이런일을 했느냐 말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몇마디 하겠읍니다.

그 좌석에는 대한중명 기업체 의장 그외에 상공회의소 회두 외에 몇몇기업체에있는 사장을 중진을해놓고 우리 서울시민의 대변기관인 의장을 제거했다는 그이유는 무엇이냐 두말할것도없이 우리 서울시민을 무시했고 또우리시민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아니볼수 없읍니다.

또 묻건데 우시 서울특별시장이 단독적으로 이런일을 했다는 점 왜냐 외무부에 외정국장은 말로…….

우리는 중앙으로서는 아무런 간섭도 없읍니다. 우리서울시에 부시장은 중앙에서,

지시를 한것과같은 이러한 말씀을 한 사실을 들었읍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외무부에서 그런지시가 있었다고 합시다.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가 바지 저고리가 아닌것이다 그런말이에요. 서울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오찬회석상을 베풀은 이자리에 서울시민의 대변기관의 의장을 초대않는다는것은 이런말이 있음니까.

생각컨데 고의적 더나쁘게 생각한다고 악질적으로 우리서울시민을 무시한것이 아닌가? 아니 생각할수없읍니다. 본의원

특히 우리서울특별시장 존경합니다 이번 처사에 있어서 있을 수있는일이냐 그러말이에요. 우리서울시의원 껍데기를 버껴도 정도문제이지 이럴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특히 제가 생각할적에 간단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만 문제가 되지않으리라고 하는것을 일변 생각하고 있는것이에요. 왜냐 아마 그장소에는 촬영반이 갔었다 말이에요. 촬영을 해가지고 자기나라에 가서 「뉴스」를 할것이란말이에요. 그때에 서울특별시에는 서울시의회가 없는가하는 감을 외국사람한테 줄 적에 우리 서울시민으로서는 특히 분개하지않을수없는것.

어떻게 우리 고시장이 생각을하고 그런 행사를 했는지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요. 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은 간소화하는 의미에서 이런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어요?

우리 서울특별시장은 간소화라는 말씀은 못할것입니다.

간소화라는 문제는 바지 저고리를 입는다든가 일상생활하는데에 있어서 간소화이지 사람을 불러다가 대접하는 장소에서는 간소화가 없을것이에요. 서울시장께서는 이처사가 타당한 처사라고 보는지 그렇지않으면…….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은 국회에서 분명히 증언을 했읍니다. 그책임을 지겠습니다…… 말했읍니다. 고시장도 이런 의사로 말씀하실는지 분명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듣고 합시다」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이제 발언 하두어분 더하고 그후에 답변듣는것이 좋을것같슴니다. 강을순…….

○강을순 의원; 이제 제안과 더불어 여러의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많이 하신줄 암니다. 또한 제가 질문하기전에 다소중복을 피할려고 합니다만은 약간있을는지 모름니다마는 충분히

양해해주시기 바람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처사가 부당하다는것을 이사람은 지적아니할수가 없읍니다.

작년 9월5일 개회이후 각종 서울시산하의 행사에있어서 의장석이 있든것은 불과몇번 시장과 한자리에 한일밖에없다고 이사람은 생각하고있읍니다.

보통언제나 행사에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의 자리는 있읍니다마는 의회의 의장자리가 없는것은 허다했을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자가 부인할수없는 사실입니다.

수차 본의원이 내무위원회에 있을때에 내무국장 김성녕이 사관에게 수차 언명한 사실이있읍니다. 또행사에는 반듯이 의장석을 시장과 꼭같이 하도록 또한 행사에있어서 각종 의원에게 통고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행사에있어서 별로 의장과 더불어 각의원앞에 별로 통지가 오늘날까지 없었든것입니다. 그것은 그정도로 하나 말씀드리고 월남대통령 초대에있어서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가 반도호텔에 초청하는 입장에 있어서 좀더 인격적으로나 모든면으로나 존경하는 고재봉시장으로 제가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금반 이처사에 있어서 이사람 발언이 다소과격한말이 나오드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까다른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이 시정연설에있어서나 의회인사말씀에있어서나 의회의 表裏如一해야된다 이런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하면 서울시민앞에서나 모든 행사에있어서 表裏如一운운했지만 겉과 속이 꼭같어야지 겉으로는 무엇입니다하고 뒷구멍에서는 이따위 행동을 한다고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가지고도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를 믿고 어떻게 할수있느냐? 表裏如一되어야 된다는것을 한번더 말씀드려 두는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제가 조목 조

목 제가 말씀드릴터이니까 고재봉시장께서는 잘기억해 주시기 바람니다.

제일첫째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로서 초청하는것인가 자연인 고재봉씨 개인명의로 초대할것인가 또한 둘째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었기때문에 야당이라고해서 초대안한것인가?

셋째로 민주당소속의장 아니고 자유당소속의장이라고하면 초대할것인가 자유당소속의장이 아니라고해서 초대는 하고싶지않은 생각을 가지고있는가?

넷째로 초대할 한계 초대할 한계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가 한계를 규정하고 초대한것인가? 또한 외무부 운운하고있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의 장으로 초대한다고하면 외무부와 관계없는것을 내가인정하고 있읍니다.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한 다섯째 고시장으로서는 고시장의 의사로서 의장을 초대할 생각을 갖고 있었든 것인가? 또한 외무부에서 의회의장을 참석하지 말라는고하는 구두로 통보를 받은것인가? 또한 서면으로 받은것인가?

또한 일곱째 상부에 좀잘보이기위해서 좀심하게 말하자면 아부하기위해서 민주당소속이라고해서 초대안한것인가?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의 시장의 지위를 보존하기위해서 초대안한것인가? 또한 이문제가 초대에있어서 그앞에 반도호텔에 정한다고해서 우리 운영위원장이나 기타 관계위원들이 부시장이나 관계 주무과장에게도 의장을 참석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고시장으로서는 도의적인 면에서 만고에 외무부에서 그런 미스가 있었다고 하드라도 그런 시장으로서는 외무부장관 기타 관계관에게 의회 의장을 참석토록하라는 말을 한번이라도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람니다.

몇가지가 중복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점을 간단히 요지만 질의만하는 동시에 추후 시장의 답변을듣고 다시 의아한점이 있으면 질의할 생각을갖고 있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김동순 의원; 동일한 의제에 긴급발언으로 나왔읍니다.

지금 여러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그내용이라든지 조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저는각도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몇마디 발언을하고 고시장답변 또 나 자체의 생각하고있는바를 여기서 애기합니다.

월남대통령이 여기오셔서 정부에서 이렇게했다 저렇게했다 하는것은 다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의회의 예산과 서울특별시 집행부의 예산은 따로히 있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서 단독으로 왜 초대못해요. 꼭 고시장이 불러주어야 가요? 적어도 수도 서울의 의회의장이라면 시장과 동격 또는 그위라고 볼수있읍니다.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시민을 대표한다고 그랬지요? 시민의 대표가 아님니다.

시장은 부하 직원의 행정사무처리에 감독 지휘하는 이것뿐이지 서울시민의 대표는 우리가 대표에요. 시의회가 대변기관입니다. 시장은 공복에 불과한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선시장이 빨리되어야 되겠다는것은 이러한 문제에 봉착되고보니까 민선시장이면 이렇게 처사를 안했을것이요 또 의장과 집행부장이 잘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외국의 원수가 우리나라에 또 올는지 몰라요. 우리시의

회 의장으로서 넉넉히 초대할수있지않어요? 물론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마는 의장께서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이초대에의 비용이 아마 서울시민의 예산을 내어서 했다는것은 뚜렷한 일이고 고시장이 구차한 생활을한다는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정부가 하는일과 다른 방향으로하면 목떨어질까 생각하고 있을것이에요. 그러니 할수없는것이에요.

그래서 이다음에 서울시의회로서 초대하고싶다 말씀이에요. 나는 시장을 두둔하려는것도 아무것도 아님니다.

제가 못한것이 실책이에요. 우리 의장님은 미국에서 대학들을 나왔어요. 인물이 못났어요? 인격이 남만 못해요?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카메라멘이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님니다.

서울시의 대표자로 떠나가서 대한민국에 자치제가 되어있고나 인식시켜야 되는것이에요. 아마 월남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자치가 되어있는지 이러한것을 모르고 갔을것입니다.

이러한 처사에 있어서 잘생각해주시고 겸사로 교육위원들이 모다 안계십니다마는 의정단상을 통해서 정식으로 말합니다마는 교포학생들이 시찰왔을적에 시청 구내식당에서 오식이 있을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치 되어있다. 왜 놈에 그야말로 36년간의 우리가 고생하다가 자주독립이 되어서 서울시에도 의회가 있다는것을 교육감으로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의회의 존재 가치를 말씀해야될것입니다.

그것을 안하셨다는것은 참 섭섭합니다. 차후로 이러한 일이 있을때에는 가능한 한 이라는것은 태만이요 망각이요 그야말로 낡은인격이 하는짓입니다.

(「옳소」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여기 질의에 발언통지를 났는데 그규칙에 의해서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는것이 옳은 것이 올시다.

그런데 이제 김의원께서 긴급이라고해서 발언을 들였는데 사실은 순서를 어겨서 용서해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답변듣겠읍니다.

시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고재봉; 지금 여러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민주우방의 대통령께서 내방하시여서 전서울장안은 환영의 일색으로 변했든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기꺼운 일이였읍니다. 또한 경사스러운 일이기도 하였읍니다.

모든일을 조심해서 잘하느라고 하는것이 미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의원에게 불유쾌한 생각을 가지시게 해서 거듭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혹시 가까운 친구의 초대를 받어서 거기에가서 좋은음식을 잘먹고 또한 유쾌히놀고 돌아왔다가 그후에 자기가 거기를 간것으로 인연해서 그가정에서 논의가 있었다든지 혹은 내외간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말을 듣는다면 초대를 받었든 그사람은 거기를 가지않었드라면 차라리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나고 미안한 생각이 드는것이 보통의 관례라고 보겠읍니다.

그런데 이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또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이논의가 되었다는것이 전파를 타고 만약에 우리가 전힘을 다해서 서울시민이 밤잠을 자지않고 환영했었는데 여기에 오셨든 그국빈께서 이것을 들으신다면 혹시 우리의 노력했든 그의미가 흐려지지않을까 이런생각이 나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만약여기서 제가 답변드린후에 좀더 자세히 알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시면 그것은 대표를 선정하시든지 그렇지않으면 사사로이 저에게 찾어와서 물어주시면 대답할수있는 정도까지는 대답해 들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공식으로 물어주시는것은 이것으로서 끝을 맺어주셨으면 이것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않인가 생각하고 감사함을 들입니다. 또한 서울시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이서울시의회가 발족한 이후에 서울시의회 의장께대해서 조금이나마 소홀한 생각을 가졌다든지한 일은 없읍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장내소연)

○의장 박명준; 먼저 손든이에게 발언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문학우 의원; 평소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고시장님 지금 답변여러분 다들으셨을것입니다. 이것은 어른아해 作亂입니다.

항시 여기나와서 답변하는것을 보면 「구랭이」담넘어 가듯이 할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않됩니다. 왜 여러의원들이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않하느냐 그말이에요. 나라를위해서 묻지말어라 이것이 무슨말이에요. 당신네들이 시의원을 무엇으로 아는거에요? 우방국가의 원수가 오셨기때문에 기쁘고 경사하다. 그리고 조심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 의장을 초청안한 것이 조심을 하기위해서 초청 안한것이며 월남대통령을 암살이라도 할까봐 겁이나서?…… 160만시민을 모독해도 「유만부동」이에요. 한계가 있는것이에요. 전체시민이 모

인가운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를 선정해서 나한테 오시요. 무슨말이에요. 이것 이렇게 어물 어물 넘기지 마시고…… 지금 조목조목이 질의했으니까 그조항에 대해서 숨김없이 그야말로 민주적인 시장으로서 답변해 주시지않으면 이 회의는 온종일가도 끝이 안남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거 질의도 많이했고 시간이 넘어서 언권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고하니까 제안자에게 먼저 발언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장내소연)
(「규칙이요」 하는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규칙발언이라니까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의사진행상 규칙을 무시해서 않됩니다. 엄연히 어저께 발언순서가 들어가서 그것이 오늘 연장하게 되여 있어요. 그러면 입태왔든 자체가 전부나 전복되여버려고 또한 시방 제안자가 나와서 말씀들인다고 하는것은 이 잠깐에 가설랑은 규칙을 무시한다고설랑 이럭저럭 나간다고하면 이회의는 혼란이되고 각자의원이 뜻한바있어 심각한 질의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순서를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회의진행상이라든지 절차의 모순이 없다는것을 말씀드리고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입니다」 하는이 있음)
○김제윤 의원; 지금 이갑수의원이 의도하는 각의원이 뜻한바 가장교육적으로 질의를 하고저한다는 그러한 얘기는 본의원이 일즉이 제안했든이나 똑같은 내용에 속합니다. 하등의

이사람이 여기 올라와가지고서 얘기하는것이 그 질의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다는것을 말씀드려두고 보통상식으로는 나는 회의법으로 능숙능란하게 안다는것이 아니지 원래 이본건을 제안한 사람을 왜그사람이 또 얘기를 해야만하는 그러한것이 있을때에는 회의법에는 없으되 상식적으로 그사람을 우선으로 주는것은 상식화되였다는것을 알고있읍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저번날 외무부장관에게 질의할때에 본의원이 국회에가서 종시일관 방청을 했읍니다.

그때에도 본의원이 역시제안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趙瓊奎부시장이 사회를 하는데 제안자로 말미암아 이런얘기가 있으니 먼저줄가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해서 주는 방향으로 했읍니다. 지금 이갑수의원 지금 의도하는 것을 알고…….

기회있으면 얘기할려고하는 의미에서 않하는것만은 말씀드리고 본의원에게 의장께서 더한번 발언을 주시면 지금 제안한 내용과 고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거리가 있기때문에 더말씀드리므로서 필요로 한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의장께서 본의원에게다가 한번발언을 줄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장내소연)

○의장 박명준; 우리가 질의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여기에 토론을 가하지말고 질의만 해주시기 바람니다. 그런데 질의를할려면 간단명료하게 요점을 들어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여기가 우리 의회석상이니까 여러의원들께서 정중하게 말씀해주시고 이자리에서 넘어 흥분된 말씀을 않해주시면 대단감사하겠읍니다.

(「내가 정중하게 얘기하겠읍니다」하는이 있음)

(「의사진행하겠읍니다」하는이 있음)
○강을순 의원; 다음의원이 발언하실텐데 제가나와서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가 이질의를 의제가 질의가 되였읍니다. 그래서 각의원이 질의를 했읍니다.

의장께서 조목조목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본의원이 하나 둘 숫자적으로 질의했읍니다. 그러다고하면 시장께서 여기나오시는 이유는 법에 의거해서나와서 답변하는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나와서 답변은 그분을위해서 답변하기어렵다 이만일은 다끝쳤음니다. 이사람자체도 월남대통령을 위해서는 의정단상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전연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불가분에 返追이 되였어요. 어떤 시민이알려고 방청석에 계십니다. 공개회의 공개정치입니다. 숨길필요가 없어요.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정신에 입각한다고하면 뭐라 않될것이 뭐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있에요. 그러나 의장께서는 고시장 다시 나오셔서 여러의원이 질의한 그 자체를…… 가부를 완전히 가려두어야만이 의사진행이 원만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고시장이 이런정도로 그냥 나온다고할것같으면 본의원이 달은각도로 생각이 있읍니다. 의장께서는 고시장이 나오셔서 각여러의원께서 조목조목질의하신데 대하여 可타든가 否타든가 말하자면 고시장께서 기억이없다고하면 내가 이 여기 쓴것을 갖다드릴 용이도 있고 사실 질의라도 하겠읍니다. 의장께서는 직접 고시장이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주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하는이 있음)
○김경원 의원; 재차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해놓고 제가 질의를 괜히했든 감이 듭니다. 저는 먹은맘 듣는말다 말을 하므로 시민 160만 앞에서 말씀을 해놓고 우

리 시장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신것과 마찬가지로 해놓으셨으니 제가 멀숙해 졌음니다.

그러면은 고시장께서 시방 말씀이 본의가 아니다 중앙의 암시에 의해서 한것이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를 우리160만시민이 우리의 모든 살림사리를 고시장한테 맡겨왔는데 이정도로해서 듣고말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시장께서 뭐그렇게 속속드리 얘기안하셔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주권을했다 그러나 중앙의 위임사항같이 되버렸기때문에 했다든가 이정도는 여기를 해주셔야 될것이 아님니까? 우리가 이자리에 나와서 회의를 할적에는 시장님을 이자리에나와서 말씀하라고 할적에는 우리가 듣고싶어 했던것입니다.

그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만다면 우리가…… 160만시민이 한 수고로 들리고마는것입니다 괜히 나와서 고시장 바쁘신분을 여기에 불러다가 말을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시장께서는 그래도 속속드리 깊은 말은안해도 대충 우리가 듣고어느 정도 알게금 말씀을해주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답변을 안하신다면 이자리에 자구 딴의원들이 또말씀을할터인데 고시장께서 그정도로하고 마실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정도 귀에 들을만큼 말씀해주십시요. 만약 안하신다면 김경원의원 의회석상에서 쫓겨나겠읍니다. 시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이자리에 나와서 힘껏말을했어요. 이냥도라가고 만다면 제꼴이뭣입니까 제자신구에 가면 선거민들이 내쫓을려고 들겁니다. 이것해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양찰하셔서 어느정도 우리 160만 대변인이 물은것은 말씀해 주십시요.

그렇게 안하신다면 곤란합니다. 이점생각하시고 시장님 나

와서 말씀하여 주십시요.
○의장 박명준; 이제 시장의 추가답변을 해주시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시장께서 좀더 거기에 내용에대해서 좀더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한 답변이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시장 고재봉; 제가 답변을 불충분하게 해드려서 여러의원께서 부족하게 생각하시는것같은데 실상은 여러의원이 말씀한데 대해서 제가 오히려 답변을 하지않겠다는것이 제 의도가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서울시민을 위하는것은 마찬가지이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나 범사에 이익된일을하겠다고 생각하는것은 마찬가지 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모처럼 우리가 국빈을 초대해서 그분에게 경의와 노력과 성심을 다소모하고있었는데 이제 이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다면 우리가 했던것이 오히려 허사가 아닌가하는 이런염려가 있어서 여기에대해서 이것을 양찰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을 알아보겠다고하시면 어떻한 방법으로든지 내용을 아시게 되였으면 고만이니까 따로 물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결코 여러분의 질의를갔다가 전혀 거부하는것이 아님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장내소연)
(「간단히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요 하는이 있음」)

간단히 요점이라고 하는것이 국빈을 초대하는데 서울시장이 개인이 어떻게 국빈을 초대합니까? 아니시장 개인이 아니라…… 서울시의 자연인으로 어떻게 국빈을 초대합니까? 그것은 안되는 일이지요. 아까 물으신 것은 시장으로 했느냐 자연인으로했는냐 그것인데 그렇다면 답변은 그것이고 국빈을

초대한다고 하는것은 여기에대해서 국제 예의가 있는것입니다. 국제 예의가있어서 외무부에서 이번에 월남대통령각하를 모시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행사하는것이 좋겠다고해서 그절차를 정해준것이니까요. 우리는 국제 예의라고 하는것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한것입니다. 한것이고 아까도 말씀했는데 나중에도 그것은 고칠수가 있었는데 고치지 않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외무부에서 字를 만들어서 손님께 보내드렸에요. 그보내드리는것을 다시 고친다는것은 변경한다는것은 곤란한것입니다. 그런점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또답변해드리자면.

(「의회 의장을 어떻게 뺐나하는그말씀만 하세요」하는이 있음)

거기에대해서는 아까 내가말씀드렸음니다만은 잘할려고 했는데 생각의 미급으로서 그런일이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있어서는 시의 의장께 대해서 집행부에 있는 책임자로서 소홀히 할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소홀히 생각한 일도없고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겠읍니다한 것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대해서 이것이 시장이 한것이냐 외무부에서 한것이냐 이런말씀 하시면 시장으로서 이것을 천명하기위해서 이렇읍니다. 저렇슴니다 하기는 싫슴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실만큼 아실줄 믿습니다.

(「의장님이 초대한 것이 아님니까」하는이 있음)

서울시장으로 초대했에요. 거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임사항이라고 해두세요」하는이 있음)

외무부에서 명단을정해서 그래서 거기에 의존해서 했다는

말씀은 했읍니다.
(「시장님이 정한것이 아닙니까」)
(「외무부에서 정한것입니까」하는이 있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내가 사석에서도 물어주시면 말씀하겠는데 시장이 했다면 어떻고 외무부에서 했다면 다름이 무엇이 있읍니까? 이미 다지나간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구구이 나의 입장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변명을 하기기 곤란합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여기에 미안합니다마는 순서로 조영석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조영석 의원; 이제 여러의원께서 질문을했고 고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답변이 아닌걸로 이렇게 해석하고있읍니다. 왜 이문제가 여기에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하는것을 우리가 도리켜 생각해본다면은 의당 국빈을 서울시장이 초대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의 자치단체의장으로 초청을한다는 그러한 성격은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성격 자체는 어디까지나 160만시민이 초청을 하는것으로 이렇게 그성격이 규정되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60만시민이 초청하는 형식 그런의의가 내포되었다고 한다면 그 초청하는 절차는 어디까지나 그민주주의적인 성격이 또한 반영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런것이 전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하나의 민주주의를 구성하려하는 의원들이 의혹과 또는 민주주의를 갈망하고있는 시민들이 의혹을 합쳐서 서울시장에게 비민주성을 묻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가보기에는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것과 내가 보고 있는것입니다. 여러의

원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했지만 질문의 골자라든지 요점은 지극히 간단한것 입니다. 주최가 서울시장이면은 우리시의 경비가 나갈것이고 초청하는데 있어서는 시장이 의도대로 초청할수있었을것인데 어째초청하지않었느냐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서 빼 놓았나하는것이 하나의 질문의 중점인데 이것이 답변을 하기에 회피하는걸로 보아서는 거기에 우리가 관여할수없는 어떻한 정치성이 개재되어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거족적으로 국가가 국빈을 초청하고 그런 대접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등의 정치성을 개재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 것 입니다. 단지 내가 보기에는 평소 집행부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자체가 민주주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는 입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제의식은 항시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있는것에 기인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으로 좀더 서울시의회가 어느방면으로 치어가고 있느냐하는것을 자치단체의 장은 충분히 알어야 될것이라고 나는 이시간을 통해서 갈망하는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의회를 무시하는데서 나왔고 자치단체의 장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방향에서 항시 심려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또한아니느낄수 없는것 입니다.

아까 말씀가운데에서 초청을받어서 갔다가 대접받고온후 그집에 불화가 생기면은 간사람자체가 오히려 민망스러울것이 아니냐하는 이런말씀을 들었읍니다. 그것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들었읍니다마는 旣位 이문제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그분이 이땅을 떠나기전에 알고 갔었고 벌써 외부에 접대하는 절차가 모순이 생겼다는것을 본인 자신도 충분히 알고 다녀간 것입니다. 그분이 민망스럽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해서

답변을회피하는 그렇한 태도는 이시간에 가질수없는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시장께서는 이문제를 지금 공개된 이석상에서 일일히 답변하는것보다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서 여러분에게 궁금을 풀어드릴 방법이있으니 물어달라는 얘기를 얘기해주십시요 하는데 이렇게해서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신 그질문의 요지는 몇가지 안되기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었다는 이유만을 말씀해주면 의원들의 궁금이 풀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하는것이 국가의 체면이나 우리 민족적인 죄가 본다고는 이유를 생각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이 이상 이시간을 끌지마시고 고시장께서는 여러가지 질문하신것을 대충 추려서 이문제는 이렇게 되었구 저렇게 되었다하는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렇게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게 되었읍니다하는 말씀은 대단히 이상스러운 말로듣고 있읍니다.

만일 대접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응당의회 의장을 초대해야 될것을 망각했다든지 또는 奔忙중에 잊어버렸다든지 하는것은 어느정도 이해할수가 있는것으로서 내가 보기에는 의식적으로 초청을안한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것입니다.

만일의식적으로 초청을 아니하고 하나의 정치적으로 의의가 내포되어있다면 서울시장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러한 처사를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솔직하게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럼으로 지금 이문제를 수습하기위하여 우리 의원들의 궁

금을 풀어주기위하여 답변을 거부할것을 주저마시고 여러의원들이 묻는 골자를 대충 답변해주시기를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명준; 아직 발언통지난분이 여섯분이나 남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그만하면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시장께서 답변하신것은 그렇게 우리의 요구한대로 생각을 하지는 못했고 또불명확한 답변이지만 답변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러니 본건에 대해서는 이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않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이요」하는이 있음)

김의원 말씀하세요.

○김수길 의원; 이문제를 가지고 어저께부터 장시간 논의되었는데 지금 고시장께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말씀을하고 저의 답변을 될수있으면 회피하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의제를 걸어가지고 벌써 장시간 이렇게 논의한 이상에는 고시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옳소」하는이 있음)

지금 의장께서는 마 이만한 정도면 그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것같은데 이것은 안되겠다 말이에요. 지금 고시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힘껏질의한 그핵심이 어디에있는가 잘모르시는것같은데 실례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왜 초대를 안했느냐 이것이에요. 이초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읍니다 마는 여기에 우리가 고의라든지 체면을 떨어진다…… 잘하셨는데 여기에 시의회 의장을 어째서 초대에 빼났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핵심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관권이 싸우는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시의장이 먹고 못먹는것이 아

니에요. 문제는 확실히 거기에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구태여 우리들도 체면이있는 사람이요. 시장이 답변하는것을 보면 시장만이 예의범절을알고 시의원들은 체면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다른말씀 끌지말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것입니다.

어물어물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외무부에서 이렇게초청할 사람을 대강지시해왔으니 시로서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지만 따를수없어서 그래로 했다는 정도로 보고있읍니다. 과거를 자꾸 답변하지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우리민주주의「데모크라시」하고 관권하고 싸우는것을 지금 아셔야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들이 이렇게 떠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어야 되겠다 시장의 말씀대로 예의범절을 다갖추고 답변을 나와서 해주세요.

○김상흡 의원; 이제 우리 회의규칙으로 시간을 따저본다면 아마 연장동의를 해야될것같습니다. 이문제종결할때까지 시간연장 할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요」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이의 없읍니까?

(「없읍니다」하는이들 있음)

이제 연장동의가 나왔읍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한시까지인데 연장하지않으면 진행에 곤란합니다. 동의가 나왔읍니다.

(「이의없읍니다」하는이들 있음)

그러면 본안건이 종료될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김상흡 의원; 월남대통령 우리나라에 국빈으로 오셔서 정

부는 물론 이는 우리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에서까지 훌륭한 대접을 해서보낸것도 썩잘된 행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특별시 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대단히 모호한 답변만 해요. 우리시민 앞에 툭터놓고 「난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뭣이 잘못이냐」 그렇게 한다든가 「내가 잘할라고 했지만 고위측에서 그렇게하면 안된다하는 명령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지못했읍니다」한다든지 양단간에 답변이 있어야할것입니다. (「옳소」하는이 있음)

내가 알기에는 이것을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도록하기위해서 부시장에게 초대하는 그전날 간곡히 내가부탁한일이 있어요 「내가듣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고」 대통령을 초대하는데 서울특별시의장은 초대범위에 들지 못했다는데 사실이냐? 나도 믿을수없지만 한번따져보니 당신 대답해달라」부시장 답변이「이거 괴로워서 말하기 어렵습니다」그럼 정부어드매서 하느냐? 외무부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이름과 서울시민에게서 걷은 시비 접대비 그것만 지출하라 그외에 어느장소를 정한다든가 누구누구를 초청한다든가 그거는 저의 애써 간섭하지말라 대체 이렇게 되였으니 우리가할 도리없소 그이상 물으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그런뜻으로 부시장대답했어요. 나그거 이상하게 해석한것은 가량정부에서 초대비용을 전적으로 지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을 내 건다 하드라도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초청하는 이상에는 우리 의회의장은 당연히 거기 제일첫째순번으로 넣어야할턴데 그걸빼논다는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튼날 바로 초청하는날입니다. 시 총무과장을 오라고해서 거기대한 상세한것을 물어보았읍니다.

역시 그와비슷한 답변을하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네들

과 아무리 얘기해보야 내속이 시원치않다해서 전화로서 외무부의전국장과 의전과장에게 걸었읍니다.

한사람도 거기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무부 차관한터 걸었어요. 차관도 없어요. 그러면 비서실장이나 누구책임있는 사람이 받으라고해서 「당신네 우리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아는가 외무부장관내지 차관이「고」대통령을 초대하는데 이렇게해라 저래라할 권한이 있느냐 답변해라」했더니 「잘못한것이 있으면 시정하면 되지않겠읍니까」「그러면 의전의장은 장관의 명령을 안받고 어디명령을 받느냐? 즉각적으로 취소해라」했더니 알어보겠읍니다해서 내가 기다리다못해 장의순의원과 의전국에 찾어갔었읍니다. 갔더니 의전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나와따저봅시다 서울특별시에 「고」대통령을 초청하는데 당신내가 초청범위까지 지시하고 비용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출하라 이 따위 버릇이 어디있냐」고 따졌읍니다. 그랬더니 그사람 답변이 「절대로 그렇지않소」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않도록 설명해라」「우리는 외무부에서 외국손님 출석하는 범위를책임지고 주최자측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내인사를 책임지게 됐읍니다.

그러니까 국내인사를 초청하고 있다는것은 서울특별시 주최자측에서 초청하는 것이요」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명함 하나주소. 만일 이것이 논의가 되서 당신이 증언대에 나오게 되는지도 모르겠소」했더니 마침 명함이 없다고해요. 「없으면 할수없소 분명히 당신이 의전과장이요?」「네 의전과장 틀림없소」해요 그래서 시 총무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전번과 마찬가지로 「전부 외무부에서 해온것이지 우리는 모릅니다」

외무부하고 시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거에요. 과거지사를 그만치 설명하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것을 시장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특히 부시장이 이건 잘알걸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을 꾸며낸 본인이 부시장이니까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 어떻한가 이걸 간단히 나와서 설명해 주십소. 자치단체의 성격이 어떻길래 외무부의 이런지시에 좇는가 외무부일에 시비를 지출할수있는가 둘째 집행기관의장과 의결기관에 장에 위치를 좀설명해보라…….

어느것이 주고 어느것이 종이고 어느것이 상이고 어느것이 하이냐 내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아무래도 집행기관에서 이 주와종 상 고 하를 구별하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들리어주고 동시에 정부에 외무부에서 지방자치법에없는 시비지출을 어째서 할수가 있는가.

이것이 국가에 위임사무라든가 오대통령을 초대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꼭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출해야되고 분명히 부시장은 말씀했읍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위임과 지방자치법상에 대한것을 여기에 대한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법에없는 시비지출을 강요할때 서울특별시장은 내지 부시장은 그것을 승인할수가 있는가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여러의원들이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오월남대통령은 확실히 우리나라에 국빈이요, 또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합석해달라고해서 이런 초청을해서 그자리를 오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하는 일을 나는 이야기는 않하겠읍니다마는 또 초청을 해놓고 소위 형식

적으로 국빈대접을 한다고하고 자유당 방문객으로 초대를 했드라 말입니다.

이점에대해서 내가 잘못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답변을 해주시고 이상으로 드러가겠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具喆會 의원; 우리가 논의하는것을 무시해서 고재봉시장은 걱정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에 우리나라 우리시에 체면이 손상되며는 곤란하지않느냐 그런데 그후 오셔서 아까 말씀이 기히 그르친것은 그르친대로두고 잘된것은 잘된대로두고 그냥 고만두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러한 요지에 그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좋은 말씀을하는분이 왜 용의주도한 일을못하느냐.

또우리의회가 지금 고재봉시장한테 질의하는것도 우리나라의 권위나 또는 우리시에 건전한 권위의 위치를 살리기위해서 지금 질의하고있는것을 잊지말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질의용건에 들어가기 전에 고재봉시장은 민주주의를 잘못해석하는것같이 말했읍니다. 관권주의를 제창하고 솔선수범을 하고있지않느냐? 난이렇게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것은 여태까지도 고재봉씨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는 행정면에서 역역히 과오를 듣고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니 구성때에 시장의 인사나 축사때에 언제나 민주주의 발전을위해서 여러분은 집행부를 편달해주고 또총의에 의해서 나라의 발전을 향상시키는데에 노력할터이니 심연일체가 되여달라고하는 이러한 간곡한 인사를 개회폐회때마다 입으로 제창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회에서 건의한사항 결

의한 사항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여있느냐 하는것으 돌이켜본다고하면 시장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한것은 구두에 그치고 그실지면에있어서 과히 반영된것이 불과몇가지 헤아릴수있는 정도에 지나지않다고하는것이 오늘날까지 시행정의 실정이올시다. 이런것을 고재봉시장은 여기에 시장으로 계시다가 다른데로가면 또다른시장으로 헤여지는것이요. 또 고재봉씨는 중앙정부위원의 요직에 간다고하드라도 이런문제가 또 논의되고 명확히 해야만 다시 그러한 과오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해서 중대한 문제올시다.

「고」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와 꼭같아서 반공일선에가서 싸우고있고 국토가 ○○된 우리와같은 사람이고

반면에 우리와같은 정치 노선으로 민주주의발전을 시켜나가는데 공헌이 큰 월남대통령도 이러한 반공정신을 확고히 하는데 의의가 들고왔다고 저는봅니다.

만약 월남대통령이 서울특별시장에 초청 오찬회에 수도서울이라고하는 대외 기관에 위치를 보여주지 않었고 또 대의기관을 구성했으나마 이런위치를 전연 살리지안는 방향으로 대외적인 표시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으로 이러한 말을 논의하는 이상에 나는과오를 기히 아시고 생각하셔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를 우리나라만치 못하고 있지않느냐……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이런문제를 논의한다고해서 이상 우리나라에 권위가 더 떨어진것이 더떨어진것입니다.

세울수 없는것을 세울수있다거나 하는것은 그답변이 없지않으리라고 보고있읍니다.

이런문제에서 묻겠읍니다.

고시장은 우리의회가 돌을넘었읍니다만은 개회시에 출석수가 극히 적습니다. 이것은 민의를 존중하지않는다는 상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그렇다고 치드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의회에 결의를…… 의회에 의논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오지않겠는가 바꾸어 발하면 회의때마다 의논을 기억하기위해서 의회에 나와서 의논을 경청하시겠는가 이것을 확실히 사회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때마다 나와서 시민이 무슨소리를하고 무엇을하고있는가하는 이것을 듣도록 꼭참석할수있느냐하는것을 여기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어느분이 지적한 헌법제2조에 주권주민으로 되여있는데 이 민주주의에 이 민주주의의 기본요지로 되여있는 이 민주주의를 ○○하기위해서 지금 처사로 본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한걸로 본다면 관권주의라고 밖에는 보지않는데 이렇한 기본민권을 살리는 방향에서 앞으로 의회의 결의 또 의회의 위치를 아까 김상흡의원이 말했읍니다마는 차후는 확실히 존중해야 이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실천하는 방향으로 하겠느냐?는것입니다.

요점을 말씀해 주세요. 요두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다른것은 중복이 되여서 이상 묻지않겠읍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질의에 대해서는 그만큼하고 이제 부시장과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그러면 시장 말씀해 주세요.

○시장 고재봉; 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自過는 不知라는 말이있읍니다.

그래서 자기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느라고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가느라고 노력은 하고있지만 그것이 다른분께서 보실때에 이제와같이 보시게 되는것은 이것은 자기가 아직 수양의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볼수밖에없고 이것을 누누히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않슴니다하고 변명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않었고 오늘날까지에 내가 관사라고 해서 관리집행을 해본적이 없읍니다. 官吏라는 탈을 내본적이 없읍니다.

이 경무대의 비서도 3년 모두 4년3개월 3년동안 있었는데 나아는 친구가 나에게 너 경무 대에 있었구나 하는데 이가 세번거부한것이 있읍니다. 3년후에 내가 대통령각하를 모시고 동경에가서 신문에나서 이럴수가 있단말이냐고 一應 내가 책망을 들어본일이 있읍니다.

내가 도저히 관권을 발동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나에게는 거리가 너무멉니다. 그러시고 의회에 나오지 아니하니 앞으로 의회에 나와줄것인가? 말씀하시는데 나여기에 나와서 나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배우고도 싶고 보고도 싶고 그래요. 또 시의원 여러분께서 대해서도 얼굴을 아는분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실때에 저분 성함이 무엇이든가? 이런때가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시간을 좀보내고 싶슴니다. 그리고 그저 들어서 알고 보시고 아시겠읍니다마는 시장일이라는것이 그렇게 困각閉暇이 못됩니다. 그리고 요사이 같어서는 비행장이 김포로 되여가지고 한번 나가면 두시간반 세시간 잡어먹슴니다. 이런데에나와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것을 방청할 사이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나올수가 있다고하면 나올수 있지만 앞으로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그렇게 못할것입니다.

그점을 양찰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제가 미안적게 생각하는것은 의장께서 그때에 한때에 참가하시지 않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자꾸만 의장에게 말씀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서울시로서는 최선을 다했읍니다. 그러나 族券과장이 어떠니 어떠니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슴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것 같슴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회 의장에게만 대하는것이 아니라 의회 여러분 의원에 대해서 소홀히 한적이 없읍니다. 그리고 아까시장이 나갈것 같으면 수위가 사람을 시키고 순경이시킨다고 말씀하는데 이점 대단히 비근한 예입니다. 하기는 하나 나도좋아하지않어요. 그리고 여러번 말리고 있읍니다. 좀나졌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이사람이 시키는것만같이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것을 알어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이문제에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질의하실줄도 알었에요. 한번 있을법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미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종결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앞으로 어떻게할것인가를 말씀해주세요」하는이 있음)

앞으로는 글쎄 아까 이야기했지요. 아까도 의장에게 대해서 이때까지 소홀이 한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소홀히 하지않겠고 지금도 소홀히 하지않슴니다. 하고 말씀하지않었읍니까?

(「알었읍니다」하는이 있음)

○부시장 신용우; 답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김상흡의원께서 저보고 이번 점심초대에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법적으로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뭐 저에게 물으신것을 법적으로 어떻다는것을 몰라서 물으신것이라고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않합니다. 않하고 지금까지 질의가 많이계셨는데 제가 해석을 제혼자의 해석하기를 그핵심이 점심을 초대했다는데 그것이 나쁜것이 아니고 초대했는데 어찌 의장을 초대가 못되였는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것이 혹 의회를 소홀하게 생각하지나…… 그중에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혹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러는가? 이것은 소홀하게했다면 그것이 안된일이니 이뒤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두고 질의를 해주시는것같읍니다. 그리고 여기에대한것을 제가 말씀을 제생각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곧 그대답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저의 시장님께서 말씀한 답변말씀과같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이나 제가알고있는것도 저의 시장님이나 저의 집행기관에있는 사람이 의회를 소홀하게 생각 할려고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것이 아니냐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절대로 소홀히 생각한적은 없읍니다.

그리고 이번 이러한 예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치루는데 좋은 교훈이 될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정도의 답변으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 의원; 문제는 외무부에서 장부통령 대법원장 또한 서울시에서 야당의 출신의 의장을 출석안시켰다는 그 저의는 우리들이 알고도 남음이 있는것 입니다.

그러면 이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하는 이판국에 있어서 정부나 서울시가 고질적으로 어떤 처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할수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생각할때에 우리는 지금 이시간에 있어서 여당정부가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내들은 통쾌할른지 모르지만 이나라의 민주 발전을 위하여서는 뜻있는자로 하여금 통탄치 않을수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모든것이 이런일에 대해서 야당을 거세하고 여당사람은 거세한다고하면 그러면 이나라가 이제는 국토를 통일해야 되겠는데 만일 이런시기에 있어서 전쟁이 나게 된다고 하면 그사람의 子 弟라든지 이런 사람이

「스파이」가 될 경우가 있으니 그사람들은 참전 시키지 말어라 이런것을 예측할수 있다는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면 여당 야당이 있어야될것은 물론이지만 모든일을해나가는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단○가 없도록 해야되겠다는것을 삼척동자라도 이의가 없을줄 믿어지는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루 종일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댓자 행정부와 서울시의 저의는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우리 천대를 받은 우리 야당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통쾌하기 짝이없는 노릇이있다 말이에요. 무엇이냐 오늘날 외무장관이 서울시장이한 그러한 일에대해서 야당사람을 거세했다고 하는것은 만천하의 동포가 다알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동포가 생각하는것은 적어도 부통령을 빼놓고 대법원장을 빼놓고 또는 서울시장이 이분들을 초대하는데 있어서 시의회 의장을 초대를 안했다 그사람들 참일 잘해먹는다고 비난이 자자할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움직여 진다는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가지 논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로서 질의종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삼청」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이제 동의성립되였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없소」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일에 대해서는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겠읍니다.

(13시 40분 산회)